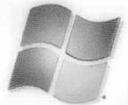


# 원도 비스타, 베일을 벗다



Windows Vista®



유재성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원도 비스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지난 1월 31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PC 운영체제(OS)인 ‘원도 비스타’ 개인용 버전이 한국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정식 출시됐다. 원도 비스타는 ‘원도 XP’가 출시된 지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MS의 야심작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원도 비스타’ 출시를 학수고대하면서 신제품 출시시기를 저울질해오던 국내 PC 업계를 포함, 반도체,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IT업계도 원도 비스타 출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창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korea 대표 유재성)는 이날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가

진 원도 비스타 출시 선언을 위한 대규모 행사 자리에서 “(비스타 출시로)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한 디지털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6년여의 개발 끝에 출시된 비스타는 다양한 입체 사용자환경을 제공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고, 검색기능과 보안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유재성 한국MS 사장은 행사에서 “원도 비스타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MS의 비전을 장장 6년 만에 구체화시킨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유 사장은 “한국MS는 원도 비스타가 사람과 사람,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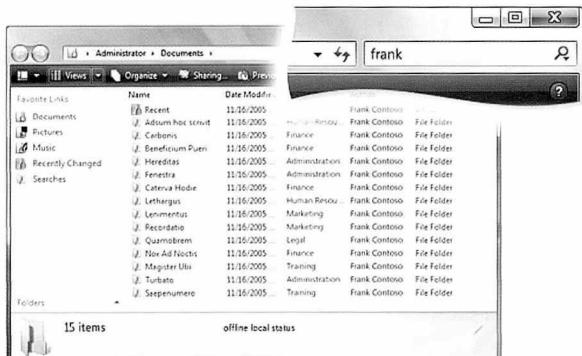
과 정보, 공동체 및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낫추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MS의 소프트웨어 유통사들은 이날부터 전국 주요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윈도 비스타 정품 판매에 돌입했다.

그러나 윈도 비스타가 출시됨과 동시에 인터넷뱅킹 등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의 호환에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비스타의 국내 패키지 가격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MS측은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을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란 호환성 확보를 위해 윈도 비스타에 새로 추가된 응용 프로그램 실행 방식으로, 신뢰할만한 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시스템 폴더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박준석 한국MS 이사는 “한국MS는 지난해 9월부터 호환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정부부처, 각 업계 등과의 간담회 개최, 세미나, 워크숍 등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공조 노력과 기술지원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탐색기 상단에 검색창이 있다.

## 윈도 비스타가 윈도XP보다 진화한 것은…

윈도 비스타는 3D사용자환경(UI), 검색, 보안, 멀티미디어 강화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부분은 UI의 변화이다. ‘에어로(Aero) 클래스’라는 투명효과와 3D기반의 UI는 우리가 그 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화려해진 것뿐 아니라 작업전환이 원활하고 메끄러워졌다.

에어로 클래스는 파랗고 네모 반듯한 기존 윈도에서 부드러운 색과 둥근 각을 채택하고 있다. 투명하고 부드러운 페이드 효과로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며, 하단에 놓여있는 창을 흐리게 처리해 집중력을 높였다. 다만 이 화려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에 탑재된 비디오 카드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MS는 최소 512MB 메모리와 다이렉트X 9.0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추천하고 있다.

윈도 비스타가 장착된 PC를 부팅하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은 화면 모니터 오른편의 사이드바이다. 여기에는 시계, 사진의 슬라이드 쇼, RSS 피드의 정보 등 일명 ‘가젯’이라는 작은 응용프로그램을 표시할 수 있다.

검색 기능의 향상도 윈도 비스타의 놀라운 발전 중의 하나다. 비스타는 이전 버전의 윈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시작메뉴와 탐색기 오른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동시에 그에 맞는 결과가 보여진다. 파일 제목 뿐 아니라 문서의 내용, 속성까지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검색결과는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인지,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즐겨찾기인지 구별해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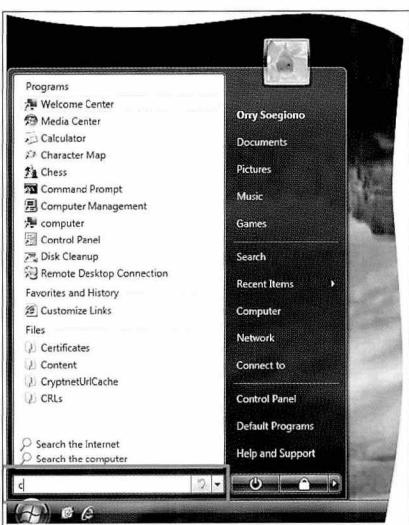
이 같은 빠른 검색은 앞으로 사용자들이 시작메뉴에 직접 응용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해 실행시키는 습관을 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 강화는 비스타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 중 하나다. 웹 서핑, 블로깅, e메일 전송, 문서작성 등 일반적인 기능은 낮은 권한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드라이버 설치 등 중요한 기능을 사용할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관리자 계정을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료 스파이웨어 차단 솔루션 디펜더를 탑재했고, 사용자가 MSRT (Malicious Software Removal Tool)를 설치했을 경우, 주기적으로 PC를 검사해 알려진 바이러스를 찾아 준다. MSRT는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XP 서비스팩 2가 지원하던 개인 방화벽의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던 것만 제어하던 것과 달리, 비스타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기능이 추가됐다.

멀티미디어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토갤러리다. 단순히 사진을 보는 것을 넘어 편집까지 가능하다. 포토갤러리는 디지털카메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적목현상 수정, 사진 자르기, 레벨 조정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음악파일도 별도의 플레이어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외에 비스타는 노트북 사용자를 위한 기능들이 집합된 모빌리티 센터를 내장하고 있고, 사이드쇼도 모바일 환경을 반영한다. 아울러 터치스크린, 전자 펜 기능, 디지털 잉크 입력, 손글씨 인식 등의 기능을 통해 모바일 환경을 위한 기능도 제공한다.



시작메뉴에 검색창이 있어 편리하다.

## 윈도 비스타, 한국에서만 비싸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PC 운영체제 ‘윈도 비스타’는 국내에서 출시되기도 전에 가격논란이 일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 ([www.amazon.com](http://www.amazon.com))에서 예약판매하고 있는 비스타의 소비자용 패키지(FPP: Full Packaged Product)가 국내 인터넷 판매처보다 최대 20만원 가까이 저렴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MS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퍼부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비스타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의견까지 개진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논란은 무조건 한국MS를 비난할 사안만은 아니다. 국내에서 비스타 FPP의 가격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한국MS에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비스타 FPP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이유가 ‘유통과정’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MS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한국MS-총판(다우데이터 등 3개사)-재판매업체의 3단계를 거쳐 판매된다. 총판에 공급하는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만 비싼 것은 아니다.

한국MS에 따르면, MS가 총판으로 내려 보내는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하다. 환율이나 운송비 때문에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약 2만 원을 넘지 않는다. 결국 가격 상승은 총판-재판매업체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MS의 SW 제품 재판매 업체인 소프트비전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광고비용 및 온라인 쇼핑몰 위탁 수수료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MS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우리만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뻥튀기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SW를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예약판매 당시 미국과 한국의 판매가의 차이**

	처음사용자용		업그레이드용	
	아마존	소프트비전	아마존	소프트비전
촘 베이직	199달러	30만3000원	98.99달러	15만6000원
촘 프리미엄	229.99달러	35만9000원	154.99달러	24만2000원
비즈니스	282.99달러	44만6000원	194.99달러	30만원
얼티메йт	379.99달러	59만7000원	249.99달러	39만3000원

인식이 한 뜻을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 SW 패키지 제품을 돈 주고 구매해 사용하는 개인은 거의 없다. PC를 구매할 때 번들로 정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불법복제 SW를 사용한다. 이는 윈도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다.

MS측에 따르면, 한국MS의 윈도 운영체제 국내 매출 중 이번에 문제가 된 FPP가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즉 국내 윈도 사용자들 중 개인이 직접 SW 판매상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S는 윈도 운영체제를 PC제조업체에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기업에 라이선스를 판매해 매출을 올린다.

국내에서 윈도 운영체제 FPP 정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관련 직종에 있거나, 마니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요가 고정돼 있다. 이런 상황은 시장에서 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SW를 구매하는 개인이 많다면, 이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자들간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국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윈도 비스타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는 소프트비전 한 개 업체 뿐이었다. 공급자간 경쟁이 없는 상황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윈도 비스타를 구매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우리는 대체로 MS가 PC업체에 OEM으로 공급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된다. MS는 총판공급이나 OEM 공급가를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공급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윈도XP DSP 가격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DSP란 조립PC업체들에 공급된 버전이다. 이 DSP 제품은 조립PC업체의 여러 사정으로 조립PC에 탑재돼 판매되지 못하고 단독으로 시장에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 현재 윈도XP의 경우 DSP는 5만~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윈도XP나 비스타의 OEM 공급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PC제조업체들의 설명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윈도 비스타를 5만~8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미국보다 윈도 비스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 비스타에선 액티브X 사용 불가?

マイ크로소프트의 최신 PC운영체제 윈도 비스타 출시로 액티브 X(Active X) 컨트롤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윈도 비스타에서 액티브 X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뱅킹 등 주요업무가 마비됐다는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윈도 비스타에서 액티브 X 컨트롤 사용법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비스타가 이를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MS는 비스타의 시스템 폴더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MS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다. 액티브 X 컨트롤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웹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각종 악성코드 침범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며 문제를 낳고 있다.

MS조차도 액티브X 컨트롤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고, 해외에서는 액티브X 컨트롤을 사용률이 우리처럼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간단한 웹 페이지에도 액티브X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처럼



윈도 비스타 바탕화면

복잡한 시스템은 여러 개의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키보드 보안 등 여러 보안 프로그램들은 시스템 폴더 내부에 설치된다.

윈도 비스타에서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윈도 비스타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UAC(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을

끄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호기능을 끄면 된다.

UAC는 평상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관리자(administrator)보다 낮은 권한의 계정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관리자 권한을 얻는 기능이다.

그러나 비스타의 핵심이 보안 강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결국 시스템 폴더 안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수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한국MS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인 시스템 폴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 기법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습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MS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X를 버리고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구닥다리 내 PC에 윈도 비스타 깔아도 될까?

마이크로소프트(MS)가 6년 만에 내 놓은 차세대 PC운영체제 윈도 비스타에 일반 유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뒤따르는 고민이 있다. “화려한 3D 환경을 도입하는 등 대폭 기능이 향상됐다는데, 내 구닥다리 PC에서도 구동될까?”

특히 동영상과 엔터테인먼트, 3D게임의 성장속도가 빠른 우리 나라의 유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일부에서는 “지금 쓰는 PC에 설치해도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PC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PC에 설치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도 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답은 ‘그 때 그 때 (PC 사양에 따라) 다르다.’ 어떤 버전의 비스타를 설치하느냐, 어떤 용도로 PC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사양도 달라진다.

우선 MS가 밝힌 비스타 설치를 위한 최소 사양은 아래와 같다.

- 최신 프로세서(최소 800MHz)
- 시스템 메모리 512MB
- DirectX 9을 지원하는 그래픽 프로세서(GPU)

한 PC 제조업체 관계자도 “미디어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이라면 512MB 램에서도 큰 무리 없이 구동된다”고 밝혔다. 이 정도 사양이라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비스타를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비스타로 업그레이드 할까?’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최소사양일 뿐이다. 운영체제만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결국 윈도 비스타 위에서 여러 응용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다는 더 나은 성능의 PC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PC업계 관계자들은 1GB 이상의 메모리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권장한다. “CPU나 하드디스크 성능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윈도 비스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非)프리미엄 PC 이야기다. MS가 제시하는 프리미엄급 레디 PC의 최소사양은 아래와 같다.

- 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 프로세서
- 시스템 메모리 1GB
- WDDM 드라이버와 DirectX 9 그래픽 지원, 최소 128MB의 그래픽 메모리, Pixel Shader 2.0 및 픽셀 당 32비트 지원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40GB(15GB의 여유 공간 포함)
- DVD-ROM 드라이브
- 오디오 출력 기능
- 인터넷 액세스 기능

프리미엄 레디 PC란 에어로 클래스 같은 화려한 인터페이스나 미디어센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의 PC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도 역시 최소사양일 뿐이다. 결국 윈도 비스타의 모든 기능



윈도 비스타 시연 장면

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양의 PC가 필요하다.

- 최신 프로세서 (x86 또는 x64)
- 시스템 메모리 2 GB 이상
- DirectX 9 그래픽 및 WDDM 드라이버 지원, 그래픽 메모리 256MB 이상2, Pixel Shader 2.0 및 픽셀당 32비트
- DVD RW 드라이브
- 오디오 출력 및 인터넷 액세스 기능
- TV 수신 카드 (Windows Vista Home Premium, Windows Vista Ultimate)
- BitLocker Encryption 지원을 위한 통합 TPM (Trusted Platform Module 1.2 칩 내장) (Windows Vista Ultimate, Windows Vista Enterprise)
- 전자 디지타이저 펜 기능을 지원하는 Tablet PC 지원 기능 (Windows Vista Home Basic을 제외한 모든 premium급 모델)
- 16:9 와이드형 모니터 권장 (사이드 바 기능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와이드형 모니터)

2GB 램이 부착된 PC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양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PC를 업그레이드시켜 윈도 비스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PC교체기까지 기다렸다가 비스타 설치 PC를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웹 서핑하고 문서작성만 하는 사람이라면 낮은 사양의 PC로도 윈도 비스타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굳이 윈도 비스타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윈도 비스타를 설치하고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고사양의 새로운 PC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